

전남도, ‘대한민국 AI 수도’로 날아오른다

전남도민의 날행사 성료

新 미래 비전 공유...도민 화합·축제의 장
힐링토크·드론 라이트쇼·콘서트 등 눈길
금지사 “역대 최고 황금찬스...이제 시작”

전남도는 지난 24일 도청 앞 OK도민광장에서 도민과 향우, 많은 관광객의 성원 속에 제22회 전남도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 AI 수도’로의 대도약을 다짐했다.

올해 도민의 날은 도청사 남악 이전 20주년을 맞아 ‘20년의 변화와 30년의 대도약, 더 위대한 전남’을 주제로 전남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도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사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역사를 바로 세운 ‘호남의 역할’을 언급하며 “묵묵히 노력한 끝에 살기 좋은 전남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오픈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SDS의 국가AI컴퓨팅센터, LS전선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 구축 등 역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4일 도청 OK도민광장에서 열린 ‘제22회 전남도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최고의 황금찬스를 만나 도민의 믿음과 준비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는 전라도 천년 역사를 통틀어서도 전무후무한 일로 시작에 불과하다. 전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AI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지난 9월 말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부흥을 이끌 제3의 고속도로라고 소개해 도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기념행사에선 또 전남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주제공연, 자랑스러운 전남인 시상과 퍼포먼스, 전남의 비상을 상징하는 정책비전 드론 라이트쇼 등이 이어지면서 1만여명 관광객의 환호와 감동을 자아냈다. 사전 행사로 열린 김제도의 힐링토크에도 1천여명이 몰려 북적였다.

26일까지 진행된 도민의 날 행사는 ‘청소년 박람회’, ‘아트페스티벌’, ‘사회적경제 한마당’,

‘미디어파사드 쇼’ 등 볼거리가 가득했다. 전남의 발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 30주년 정책전시’, ‘도청 이전 20주년 기념 사진전’도 열려 전남의 자력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문화·예술·청소년 등이 어우러진 상설행사도 호응을 얻었다. 키즈 아트 놀이터부터 버스킹 공연, 문화 예술체험존, 대형 도조화 전시 등 다채

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가족단위 관광객 등이 함께 즐겼다.

김영록 지사는 “신청사 개청 20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발판 위에 더 위대한 전남, 대한민국 AI 수도 전남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또한 광주, 전북과 함께 경제 동맹으로 호남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시의회 통과

市,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과제 명시
道와 상생발전 제도적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의결시 연내 출범 가능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지난 24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

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광주시는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을 위한 선행 절차를 완료했으며 전남도의회와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규약안은 이재명 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첫 번째 실천 모델인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것이다.

이는 320만 시·도민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며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양 시·도가 동등한 참여 원칙에 따라 연합의회를 구성하고 합의와 속의 절차를 거쳐 상호 협력 기반의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사무로는 광역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공동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등 초광역적인 협력 과제를 명시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지역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월3일)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할 경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전남도의회가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전남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양 시·도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의회가 320만 시·도민의 뜻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규약안에 대해 전향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진행해 특별광역연합이 연내에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변은진 기자

제2기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국민주권시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제2기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기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2기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경제·자치분권·과학기술·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촉직 18명과 당연직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은숙 전남여성정책포럼 상임대표가 맡았다. 임기는 2027년 10월3일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주체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협력하며 전남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주요 시책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17기 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역발전 투자협약, 지방시대계획과 광주·전남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등 핵심 사업을 심의하며 전남의 균형발전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했다.

출범식 직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인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향후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시원 기자

안도걸 “AI창의문화공간 예산 복원 다행”

광주시의회 예결위서 다시 살려내
“도심형 복합공간 조성 적극 뒷받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2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I창의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 예산이 복원된 것과 관련,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AI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은 광주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기술과 지역문화콘텐츠를 융합해 시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추경을 통해 국비 10억원이 신규 반영된 프로젝트다. 광주 동구 충장로 ‘충장상상큐브’ 건물 1~3층에 AI 기반 체험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광주시는 사업 목적과 실행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지난 16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국비 10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김진수 기자

이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재차 인정되며 예산이 최종 복원돼 사업이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안도걸 의원은 “추경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시작도 못하고 사라질 뻔했다”며 “광주 국장과 충장으로 일대를 중심으로 AI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형 복합공간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안전한 광주전남

이제, 우리마을 교통안전은

차만손으로

도로를 건널때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횡단의사 표시해요

광주광역시
Jeonnam

광주경찰청
Jeonnam Metropolitan Police

전라남도경찰청
Jeonnam Metropolitan Police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TS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Highway Traffic Safety Corporation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왜, 차만손 운동이 필요한가?

- 고령보행자는 접근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건너갈 때는 차만손 해요.
- 운전자는 느린 보행의 고령자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차만손 해요.
- 우리나라는 고령자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 차만손 해요.
- 달리는 차를 향해 손을 들면 대부분이 멈춰요.
그래서, 느린 보행의 고령자는 차만손 해요.